

재능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인가?

To Be (Talented), or Not To Be: Is That the Question?

햄릿은 영면(eternal Sleep)이란 것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으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재능이라는 것을 절대 불변인 것으로 인식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예를 들어, 어떤 한 학생을 놓고는 철통같이 변하지 않는 재능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아예 없던지 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 학생이 키가 장신이거나 아니면 단신, 혹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는지 아닌지, 살았거나 죽었는지 구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어느 쪽에 속하건 간에 일단 타고난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는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음악의 신 뮤즈가 마법의 지팡이로 선심을 쓰지 않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이 된다. 어떠한 한 개인이 지닌 잠재적 개선도(지식이나 기술의 교육과정에서 얻어지는, 외적으로는 화장이나 의복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factory setting'-즉, 선천적으로 정해진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옛말에도 "돼지의 귀로는 비단 지갑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이점을 뒷받침 한다.

나는 음악가이자, 음악의 지도자로서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얼마나 널리 만연해 있는지 늘 지켜 봐 오고 있다. 콘서트 후 리셉션에서 영리하게 생긴 학생이 겸연쩍은 얼굴과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저는 음악을 정말로 사랑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게는 재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학생을 수 없이 많이 봐 왔다. 심지어는 음악 지도자나 동료 교수들도 안타까운 얼굴로 "아무개는 훌륭한 학생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학생인데, 재능이 없어."라고 말하곤 한다. 또 만일 어떤 학생이 실력이 늘지 않을 때에는 이는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것은 나와 같은 음악 지도자들이 쉽고 간단하게 우리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는 재능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해서 '그들의 연주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고는 일반적으로나 특히, 음악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뉴욕 타임즈지 기자, Daniel Coyle이 쓴 'The Talent Code(Bantam, 2009)'를 보면, 그는 진정한 재능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또, 재능은 어떻게 키워 질 수 있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 해 보면, 재능이란 최상의 동기부여, 집중, 반복되는 연습과 전문적인 지도를 장시간에 걸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 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양의 연습(소위 말하는 10,000시간의 법칙)은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의 차이점

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는 재능이 개발되는 단계에 대해서 또, 왜 지구상에는 특정 재능을 잘 키우는 곳(예를 들어 캐리비안에 있는 쿠라카오의 야구, 러시아의 테니스, 한국의 골프, 브라질의 축구)이 생기는데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 음악 지도자는 캐나다를 꼽을 수 있다.)

어떻게 실력향상이 뇌의 해부학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한 그의 설명을 빌리자면, 전문적인 훈련이라 함은 학생의 현재 갖고 있는 실력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으로의 적절한 이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재의 실력 수준과 목표 수준과의 차이를 sweet point라고 이르면 이 sweet point(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연습이 뒷받침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음악가라면 물론이고, 음악지도자들은 누구나 연습이 완벽한 연주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재능에는 가상의 벽과 같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 또한 변함 없이 깨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음악 교육자들이 이 장벽은 부셔질 수 있는 것이고, 재능이란 후천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지도자들은 어렵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학생이 열심히 연습할 만큼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한다. '왜 학생들이(특히 아시아 학생과 비교하여 북미나 유럽의 학생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음악을 배우려는 동기를 갖지 못하는가'는 이 문제만으로도 좋은 토론 주제이나 이 주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교육학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앞에 언급한 모든 질문들은 "학생이 실력 향상을 이루게 하려면 교육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 될 수 있겠다. 우선, 무엇보다 지도자는 본인의 실력이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해야 한다. 또 지도자는 각기 다른 교수법이나 지도 방법에 익숙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음악적 기교(Suzuki, Orff, Dalcroze, Kodaly, Schenkerian analysis, Russian school, French school, movable Do, fixed Do, the Guidonian hand 등등)의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허나 지도자가 학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했을 때만이 이러한 기술이나 도구들은 빛을 발하게 되고 학생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악기의 연주법이나 성악 발성법 등 그리고 오랜 여정의 배움의 과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하나의 교수법, 연주법 학교 혹은 분석적 오리엔테이션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학생의 정신적 상태 즉, 정신적

지도(그 당시 어느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정의하고(sweet spot) 그에 따라 다음 레슨 때까지 충분히 연습에 몰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 음악 교습은 개개인의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계적이고 비 인간적인 시대에 주어진,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유산이자 우리가 지속시켜야 할 기적과 같은 음악 교육방법이다. 그러나 이 특수한 교육적 환경은, 동시에, 지도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과의 공감이가 가장 중요시된다. 만일, 지도자가 맡은 학생에게 완전히 집중 하지 못한다면 또 기꺼이 학생과의 쾌적범위(comfort zone)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도자가 그 학생의 정신세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학생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레슨 시간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지도자는 학생의 상태를 파악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그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교수법만이 그 학생이 기술을 익히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럴 때 비로서 그 학생은 괄목할 만한 실력 향상을 성취 할 수 있다.

재능이란 습득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레슨 중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다는 것이고, 학생이 한 주 167 시간 중,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가가 실력 향상의 정도를 결정 짓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 지도자들을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 하고 있고 그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수법을 고안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 개개인을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연구과제로 보는가? 하는 질문의 선택 기로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가가 지도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정의한다. 내가 가진 대답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더 이상 '재능은 천부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들의 책임에서 손쉽게 빠져나가기 위한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Contact:

Dr. Martín Kutnowski
Director of Fine Arts, St. Thomas University
Fredericton, New Brunswick
CANADA
martink@stu.ca
www.contrapunctus.com